

전쟁 없는 세계 활동 보고서



ANNUAL REPORT



2021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1년에도 건재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새롭게 변이되어 백신으로 친 안전망을 빠져나가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2021년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군가산점’과 ‘여성징병제’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리고 남성에게 부과된 병역의 짐을 어떻게 여성에게도 나눠지게 할 것인가로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죠. 병역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시민적 의무를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시민의 집합적 의사표현의 권리이자 투쟁 방식인 집회와 시위가 제약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8~2019년 0.003%에 그친 집회금지율은 2020년 11.1%, 2021년 8월까지 13.7%로 급증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폭력 직접행동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제약받는 상징적 사건들이 높아있는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쟁없는세상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일을 해왔습니다. 병역거부팀은 병역거부의 날을 맞이해 한국을 떠난, 한국으로 온, 한국에 남은 병역거부자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병역거부의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계기였습니다. 비폭력팀은 더 효과적이며 즐거운 데모를 위해, 사회를 바꾸는 비폭력 직접행동의 전략을 여러 운동 단체들과 나눠왔습니다. 무기감시팀은 군사주의에 균열을 내고, 병역의 제약에 멈춰서지 않고 아덱스 저항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무기박람회에 설치된 탱크에 올라 평화의 깃발을 펴고, 무기거래의 부당성을 외쳤습니다.

‘병역’으로 가둘 수 없는 평화적 다양성, 방역을 뛰어넘은 평화적 유연성. 전쟁없는세상이 2021년 한 해 활동하며 만들어온 가치입니다. 모두 회원 여러분의 묵묵한 응원과 지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전쟁없는세상이 활동해 온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2년은 20주년 이후 전쟁없는세상의 향후 10년을 모색하기 위해 더 많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전쟁없는세상의 평화적 상상력이 더 없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길, 또 그 상상력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목차

02 인사말

04 전쟁없는세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6 전쟁없는세상의 조직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08 2021년 주요 활동: 아덱스 저항행동

14 2021년 주요 활동: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20 2021년 전쟁없는세상은 무엇을 했나요

26 2021년 타임라인

28 전쟁없는세상 재정보고

30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신 분들

31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세요

전쟁없는세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창립 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역거부 캠페인, 비폭력 프로그램, 무기감시 캠페인을 주요 사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무기감시 프로그램

전쟁으로 돈을 버는 전쟁기업에 맞선 국제 무기거래 감시 운동, 서울 ADEX 등 방위산업 전시회에 대한 저항행동, 세계 군사비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병역거부 프로그램

병역거부 프로그램은 전쟁없는세상의 철학인 반군사주의에 입각해 전쟁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3

비폭력 프로그램

비폭력에 대한 우리의 철학이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폭력·평화운동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생산하고 보급합니다.

“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쟁없는세상의 조직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각 활동기구는 전쟁없는세상이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입니다.

총회

전쟁없는세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매년 초 개최되는 총회입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운영위원의 인준 및 해임,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등 단체의 기본적인 구조와 활동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운영위원회

총회는 단체의 운영을 위해 상설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합니다.

2021년 운영위원: 가람, 열쫁, 오리, 용석, 쭈아, 형수, 뭉치, 날맹

사무국

각각의 프로그램/캠페인 활동을 코디하는 동시에 전쟁없는세상의 홈페이지, SNS 관리, 재정 및 회원 관리 등 단체의 관리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2021년 사무국 활동가: 오리, 용석, 뭉치

활동기구

전쟁없는세상은 캠페인/프로그램별로 팀을 두고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팀 외에도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주요 활동기구

무기감시팀

쭈아, 승호, 재욱, 뭉치, 날맹이 팀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전쟁기업에 맞선 여러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무기거래 감시, 군축 활동, 방위산업전시회 저항행동을 기획하고 조직합니다.

병역거부팀

용석, 여욱, 형수, 안악희, 우공, 조은, 시우가 병역거부팀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체복무제 관련 활동, 병역거부자 상담 및 지원 활동, 반군사주의 운동 담론의 형성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비폭력팀(피망팀)

비폭력 프로그램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합니다. 가람, 구로, 아침, 열쫁, 오리가 함께 했으며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트레이닝 톨과 프로그램 개발, 트레이너 양성, 자료 개발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비폭력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 트레이닝 진행자(촉진자)들의 네트워크로 가람, 경수, 구로, 날맹, 덴마, 람, 뭉치, 은선, 수영, 아침, 열쫁, 오리, 용석, 조은, 지우, 쭈아, 트리, 펄관 모두 18명의 트레이너가 함께 했습니다.



2021년 주요 활동 아덱스저항행동



2년마다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 아덱스)가 2021년 10월 서울공항에서 열렸습니다.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는데요. 아덱스에서는 각종 살상무기들이 전시되고 각국의 군사관계자들과 무기상인, 그리고 방산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무기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이나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들도 아덱스의 'VIP'로 초대됩니다.

여기에 가만있을 수 없었던 평화단체들은 '아덱스저항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아덱스의 비윤리성을 알리고, 아덱스 주최측과 한국정부에 아덱스 중단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영상 제작

전쟁없는세상은 무기박람회 아덱스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총 세 편의 시리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1편 <아덱스의 VIP를 소개합니다>에서는 어떤 국가와 업체들이 아덱스에 참가하는지 소개합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거나 국가폭력을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들, 팔레스타인 공습에 쓰인 무기를 "전쟁에서 입증되었다"며 홍보하는 기업 등이 아덱스의 VIP 손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2편 <할아버지는 왜 탱크 위에 올라갔을까?>에서는 아덱스보다 3개월 앞서 열린 호주의 무기박람회, Land Force 2021에 저항하며 한화의 레드백 탱크 위에 올라간 70세 노인 줄리안을 만날 수 있고요. 마지막 편 <우리가 무기박람회에 저항하는 이유>에서는 세계 곳곳에

서 무기박람회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들의 활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액션그룹과 비폭력 직접행동

2021년은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행동을 펼치기에 여러모로 제한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1인시위가 아닌 형태의 집회는 금지되었지만, 몇만 명 규모의 관람객과 해외 VIP가 한 데 모이는 서울 아덱스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전쟁없는세상은 직접행동을 위한 액션그룹을 꾸려, 세 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직접행동을 실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중적으로 문제를 알리며, 무기박람회를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액션그룹에서 어떤 아이디어



어가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덱스 사전 액션

아덱스의 개막을 2주 앞두고 펼친 사전 액션은 화려한 홍보 뒤에 숨겨진 아덱스의 어두운 이면을 대중들에서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덱스 주최측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흥협회 건물에 “환영합니다 전쟁범죄자 고객님”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저승사자와 유령들도 때맞춰 찾아왔는데요. 유령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죽음의 시장 아덱스, 곧 시작됩니다” 등의 문구가 쓰여졌습니다.

정부는 아덱스를 국위선양을 위한 중요한 행사로 홍보하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등 예멘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국가들이나 웨스트파푸아 독립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나라들의 군 관계자들이 아덱스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이 액션을 통해 아덱스가 살상무기를 사고파는 비윤리적인 시장이며,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이 시장의 주요 고객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 환영행사

아덱스 개막 바로 전날인 2021년 10월 18일에는 서울 삼성역 인근의 한 호텔에서 ‘제 22



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개회식은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해외 VIP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며 사물놀이패와 함께 등장한 암행어사는 행사에 참석한 무기딜러들과 군 관계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역만리 서역 땅에서 무고한 백성을 살상하는 무기 사고파는 놈들, 아덱스에서 무기 사가지고 가 못살겠다고 일어난 백성들 겨누



는 파렴치한 놈들, 어서 나와 이 암행어사의 오라를 받아라!”

●● 비즈니스데이

아덱스의 비즈니스데이 기간은 무기 상인들과 각국의 무기획득 담당자들이 적극 교류하며 무기거래 상담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비즈니스데이 마지막 날, 아덱스저항행동의 여성활동가들은 전시장 곳곳에서 아덱스 중단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화 부스에서는 “탱크의 바퀴를 꽃가루처럼 내려놓아라”라는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시를 낭송했습니다. 이어 현대로템 부스에 전시된 탱크 위에는 또 다른 여성 활동가 두 명이 올라갔습니다. “K-방산, 살인을 수출 말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 들고 “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팩스 탄원

아덱스 개막 일주일 전부터 폐막일까지 약 2주간 아덱스 중단을 요구하는 팩스 탄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열띤 참여로 짧은 시간 동안 약 450건의 탄원서를 서울아덱스공동운영본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으로 전달했습니다. 아덱스공동운영본부는 시민들이 보낸 팩스 탄원으로 인해 업무가 거의 마비되었다면서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를 업무방해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엄연히 그들의 업무임에도 말이죠. 다음 아덱스 때에는 아덱스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아덱스 주최측



에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퍼블릭데이

아덱스 기간에는 많은 일반 관람객들 역시 여소와 전시를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습니다. 무기와 군사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되는데요. 특히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이 방문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에 방문한 일반 관람객에게 아덱스가 오락을 위한 행사가 아닌,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아덱스 행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난 가운데, 아덱스저항행동은 행사장 입구에 <무기거래의 진실> 전시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세계 각지에서 탄압과 학살에 쓰인다는 것을 전시를 통해 알리며, 방위산업 전시회의 진짜 이름은 살상 무기 전시회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활동가의 ‘방구석 1열’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은 여

전히 어려웠지만, 전쟁없는세상은 온라인 상에서 짙한 만남을 활발히 이어나갔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제목을 따온 <활동가의 방구석 1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격으로 한 데 모여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았는데요. 1990년대 영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판매될 예정이었던 전투기를 여성활동가들이 망치로 때려부순 직접행동을 기록한 영화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멸종저항 한국의 서린님과 전쟁없는세상의 뭉치가 패널로 참석한 GV에서는 비폭력 직접행동의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고, 거대한 무기산업에 저항해야 할 이유를 짚어 보았습니다.

평화캠프

2021년 평화캠프는 아덱스를 한 달 앞두고 열린 만큼 무기거래 문제, 특히 무기박람회 문제에 관해 서로 배워보는 시간으로 꾸러졌습니다. 특별히 바다 건너에서 초대손님을 모셨어요. 콜롬비아와 호주에서 무기박람회에 저항하는 활동가들을 초청했는데요. 콜롬비아의 오스카 (BDS Colombia)와 산티아고



(La Tulpa), 그리고 호주의 마가렛 (Disrupt Land Forces)을 패널로 초대해 각 나라의 무기박람회와 무기거래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각자의 저항운동의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국의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에서 어떻게 저항행동을 할지 참가자들과 함께 고민해보았어요. 다양한 게임과 툴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분수처럼 뿜어냈는데요. 직접행동 기획 툴도 익히고, 아덱스저항행동을 위한 아이디어도 구체화 해보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국제 웨비나

아덱스저항행동은 한국과 국제 무기거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무기 거래를 통제하고 줄여나가기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 웨비나 <무기거래의 진실>을 진행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시에몬 웨즈만, 도서 <어둠의 세계> 저자 앤드류 파인스타인, 영국 무기거래반대 캠페인의 샘 펄로 프리먼, 그리고 참여연대의 이영아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해 무기거래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기거래가 활발할수록 분쟁지역에 더 많은 무기가 투입되고, 대화,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과는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무기거래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제연대 액션

아덱스저항행동은 2021년 전반에 걸쳐 세계 각지의 무기박람회 저항운동 활동가들과 교



류했습니다. 아덱스 기간에는 호주와 콜롬비아의 활동가들이 각자 나라에서 아덱스저항행동에 연대하는 직접행동을 펼쳤습니다. 호주에서는 “Make West Papua Safe” 활동가들이 멜버른에 위치한 한화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한화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무기가 웨스트 파푸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무기수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아덱스 중단을 촉구하는 연대행동이 이어졌습니다. BDS Colombia 등 콜롬비아 평화운동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콜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 “죽음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과 아덱스에 반대한다”며 한국 대사관 담벼락에 “STOP ADEX” 피켓을 부착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쟁없는세상도 2021년 12월 콜롬비아에서 열린 EXPODEFENSA에 저항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연대하며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앞에

서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교안 제작

아덱스저항행동과 피스모모는 무기박람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교안 <배움의 공간에서 무기박람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발행했습니다. 무기박람회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배움과 학습의 공간에서 무기박람회를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도구들이 담겨 있어요.

2021년 주요 활동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2021년은 전쟁없는세상과 병역거부자들에 게 새로운 시대는 열렸지만 낡은 시대는 떠나지 않은, 과도기였습니다. 대체복무를 시작한 병역거부자가 있는 한편으로 여전히 감옥에 가는 병역거부자도 있었고, 대체복무 심사와 법원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시작된 대체복무제는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역 심사를 통과했지만,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은 거의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병역거부자들의 재판과 대체역 심사를 지원하며 법원과 대체역 심사위원회 대응 활동을 이어갔고, 한편으로는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와 병역거부 운동을 한국사회에 더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1년 전쟁없는세상의 병역거부 운동을 소개합니다.

평화주의자들의 대체복무 심사

2020년 시작된 대체복무는 2021년 들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꽤 많은 사례가 쌓인 여호와의증인과는 다르게 평화주의자들은 대체역 심사 위에서도 존재 자체가 소수였습니다. 일부 심사위원을 제외하면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는 심사위원들도 있었고, 그러다보니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조사와 심사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이 4시간이 넘는 조사 과정을 거치고, 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심사위원들이 양심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비꼬거나 비난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동물권 활동가, 현장 사진작가, 쿼어 연구자, 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평화주의자들이 대부분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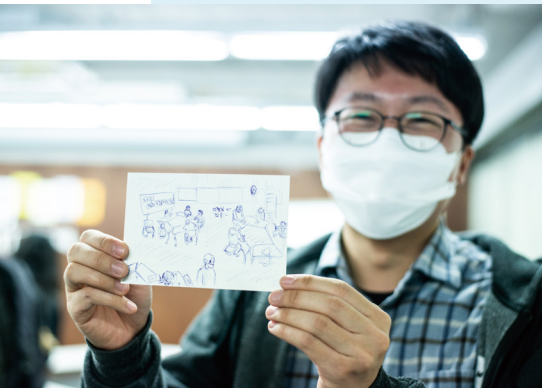
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역거부자 나단 님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나단 님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나단 님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4일 입영일에는 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나단 님이 병역거부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단 님은 기자회견에서 군대에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심사에서 떨어졌지만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양심을 증명하고 만약 유죄를 선고하면 당연히 감옥에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단의 양심을 병역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직접 입증한 셈입

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은 2021년 말에 기각되었지만,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2년에도 지속될 나단의 재판을 전쟁없는세상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법부, 구속되는 병역거부자들

나단 님을 제외하면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모두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등 새로운 시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낡은 시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병역거부자 오경택 님과 홍정훈 님은 헌법재판소의 2018년 결정 전에 받고 있던 재판이 재개되었고 202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아 3월 8일(홍정훈)과 3월 12일(오경택) 각





각 수감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판단할 때 양심의 내용이 아니라 양심의 일관성을 살피고 양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법원은 반권위주의는 병역거부의 양심이 될 수 없다고 하거나(홍정훈) 복잡한 양심에 대한 맥락적인 고려 없이 단편적인 상황만 가지고 판단(오경택)을 내렸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두 병역거부자의 재판 과정을 함께 하였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병역거부자가 수감된 이후에는 후원회와 소통하며 수감자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병역거부팀에서는 두 평화수감자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2020년 평화수감자의 날에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2021년 평화수감자의 날에는 함께 모여 수십 통의 엽서를 써 평화수감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엽서를 받은 병역거부자들이 수십통의 엽서가



수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과거에 머무는 와중에 그나마 단 한 명, 시우 님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즉각 환영 논평을 내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우 님의 무죄 선고는 여호와의증인을 제외하면 한국 사법부가 현역입영 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이유가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내용이 아니라 양심이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대부분의 재판부는 양심의 존재 유무와 별개로 양심의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우 님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를 신청했고 현재는 원주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벌금 폭탄을 받은 예비군 병역거부자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병역거부자들 중에는 예비군 병역거부자들도 있습니다. 예비군 병역거부자들은 예비군 훈련의 특성상 반복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아도 해당 훈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부과되기 때문이죠. 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점점 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과거 훈련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반복되는 가운데 새로운 훈련 거부에 대한 조사와 재판도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 차례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에도 수십 번을 참여해야 해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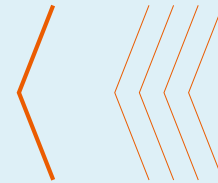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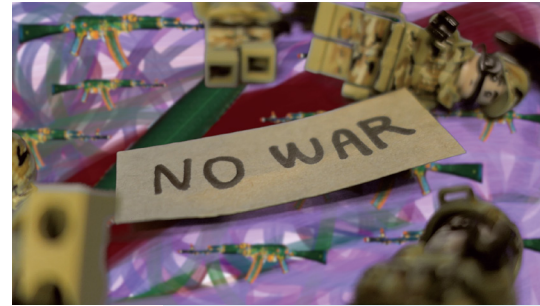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전부터 오래 끌어 오던 예비군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중 일부도 2021년에 일단락 되었습니다. 예비군 병역거부자 조성현 님, 이상 님, 김형수 님에 대한 유죄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판결문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이들이 평화활동에 참여한 것, 오랫동안 병역거부를 고민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병역거부의 양심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예비군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에서 예비군 병역거부자들의 유죄 확정 결정이 나오는 것에 맞춰 여러 차례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죄 판결의 결과로 김형수 님은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 받아 일주일에 하루씩 사회봉사를 해왔고, 2022년 상반기에는 일주일에 2일을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2021년 연말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가 확정된 조성현과 이상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아직 남아 있는 재판이 있어서 벌금 액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벌금 폭탄을 받은 예비군 병역거부자들과 함께 예비군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를 알리며 벌금 모금 캠페인을 펼치는 것으로 2022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핵심 특독

전쟁없는세상은 2021년에도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전쟁없는세상의 병역거부운동을 알렸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논평을 발행하고, 블로그



글을 기획했고 이런 소식과 메시지를 SNS와 홈페이지, 뉴스레터로 알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입영을 앞둔 사람들, 그중에서도 특히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쟁없는세상이 만든 콘텐츠들은 대부분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던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의 의미, 병역거부의 역사,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쟁점들을 두루 소개하고, 병역거부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대체복무는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상 시리즈 '양심적 병역거부 핵심 특독'을 기



획 제작했습니다. 입영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레고를 이용한 모션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핵심 특독'은 전쟁없는세상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고 각 화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화 병역거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 2화 남북 대치 상황인데 병역거부 한다고요?
- 3화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이에요?
- 4화 병역거부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 5화 병역거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1년 전쟁없는세상은 그밖에 무엇을 했나요

전쟁없는세상은 기본적으로 3개의 팀으로 운영되지만 모든 사업이 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 팀에서 진행되는 업무 중에서 활동보고서의 사업 보고 형식에 맞지 않아서 그동안 소개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보고서에서는 팀별 사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활동보고서에 담기 어려웠던 종류의 일들을 소개하고자 이 수다회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전쟁없는세상을 운영해왔던 운영위원들이 소개하는 전쟁없는세상의 많은 활동들을 들어보시죠.

Q 2021년도 코로나로 무척 힘들었던 것 같다.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얘기해보자.

가람: 2021년에 전쟁없는세상으로 단체들이 트레이닝 요청을 많이 했다.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계속 교육이나 진단, 워크숍 등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장의 모든 단체들이 사업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오는 부담, 피로감을 점점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신기하고 생각보다 훌륭했던 온라인 행사, 회의들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에 관한 우려가 많았다.

오리: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 시기를 조직을 추스르는 계기로 삼는 것 같다. 전쟁없는세상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트레이닝 내용도 조직진단이나 민주적 조직운영에 관한 것이 많았다.

몽치: 사회운동의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코로나가 핵심이다.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캠페인도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관한 것이었고 아텍스 저항행동도 무기상인들에게만은 예외인 코로나 방역정책에 관한 비

판을 했다. 또 교회나 정당의 집합은 허용을 하면서도 유독 사회운동의 집합에만 날을 세우는 정부 당국의 모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Q 오프라인 액션의 제약 때문인지 2021년엔 책도 많이 나왔다.

쭈야: 2월 초에 무기 거래 산업의 감춰진 추악한 모습을 들춰내고 이윤을 위해 기꺼이 전쟁을 기획하는 이들을 파헤친 책 <어둠의 세계>(원제 Shadow World)를 출간했다. 한국에는 무기 거래와 관련된 한국어 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해서 저자인 앤드류 파인스타인이 2017년 한국을 다녀간 뒤 번역, 출간을 기획하게 되었다. 900쪽이나 되는 워낙 두꺼운 책이라 실제로 출간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아텍스 무기박람회가 열리는 해에 나와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번역에 전쟁없는세상 회원인 이세현 님(동시통역사, 번역가)이 수고해주셨다.

용석: 2021년에 주 4일을 일하면서 책을 2권 냈다. 한 권은 청소년들도 볼수 있는 평화 입문서인 <평화는 처음이라>고 다른 한 권은 한국 병역거부운동을 제 경험과 함께 다룬 책 <병역거부의 질문들>이다. <평화는 처음이라>는 4월에 나왔고 <병역거부의 질문들>은 11월 출간되었다. 책을 쓰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는데 막상 출간되고 나니 이것을 계기로 사람들을 만나고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면 좋겠다.





Q 대체복무제도가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일단 도입이 되고 나서 전쟁없는세상의병역거부 캠페인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

형수: 그렇다 작년 515 세계병역거부의 날 행사가 그 일환이었다. ‘한국을 떠난, 한국으로 떠나 온, 한국에 남아있는 병역거부자’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토크를 진행했다.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국을 떠나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이예다 님, 예멘에서 소년병으로 징집되어 탈영한 뒤 한국으로 온 난민 히삼 님,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병역거부 선언을 했던 숲이아 님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토크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는 2018년 이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난민 문제가 전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엮여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 전쟁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개개인들이 택한 병역거부의 다양한 결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병역거부자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Q 한편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캠페인의 여정을 중간 정리하는 다큐도 나왔다.

오리: 김한태 감독의 <충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제작된 것은 2020년이고 그 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는데 정식 개봉이 작년 연말에 성사된 것이다. 덕분에 GV도 다니고 영화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병역거부캠페인에서 대체복무제도입은 중요한 하위캠페인이었는데 다큐 덕분에 그 여정이 잘 정리된 것 같다. 이 캠페인뿐만 아니라 평화운동단체로서의 전쟁없는세상의 고민, 다른 캠페인들도 잘 나와있는 다큐멘터리다. 우리의 활동을 잘 기록해준 김한태 감독에게 정말 감사하다.

Q 무기거래 감시 캠페인도 메인 활동인 아덱스 저항행동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대응활동으로 바꿨다.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무기 판매에 힘을 쏟는 아이러니를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다. 어땠나.

날맹: 그렇다. 문재인 정권의 활발한 방위산업 진흥 정책의 결과로 한국의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갈등을 시민들의 고통으로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는 방위산업 수출의 중

요한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산업연구원이 2020년 방산 수출 10대 유망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선정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연말부터 부지런히 해외순방을 다니며 무기판매에 공을 들였는데 결국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많은 평화단체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UAE에 중거리지대공미사일(천궁-II)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하였다. ‘K-방산의 쾌거’라며 떠들지만 UAE가 어떤 나라인가?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나라이다.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무기를 팔아서 난민이 생기게 해놓고 정작 난민은 못 받아들이다니 내로남불도 보통이 아닌 것이다.



Q 유료로 전환하라는 조언도 받을 만큼 전쟁없는세상 블로그는 평화에 관한 새롭고 독특한 퀄리티 높은 시선으로 사랑 받고 있다.

용석: 2021년에도 총 56편의 글을 전쟁없는세상 블로그를 통해 소개했다. 가장 사랑 받은 글을 살펴보자면, 군인권센터 방혜린 님이 여군 성폭력 문제를 짚어주셨고(‘우리는 언제까지 이 굴레 속에서’), 페미니스트 문화연구자 조서연 님은 특기를 살려 브레이브걸스 현상을 통해 본 미디어비평을 해주셨고(‘팬들이 만들어낸 ‘군통령’의 시대’), 배보람 님은 전쟁과 생태 문제를 연결한 글(‘다양성이 사라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전쟁터’를) 써주셨다. 이 세 분에 더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강인화 님이 징병제도에 대한 비판을,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님이 코로나 시대의 사회운동을 돌아보는 글을 써주시며 고정필진으로 블로그를 알차게 해주셨다. 그 밖에도 전쟁없는세상의 여러 활동가들, 평화활동가들이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반군사주의 콘텐츠로 블로그를 가득 채워줬다.

Q 간만에 제작했던 굿즈 역시 큰 인기였다. 어땠나.

뭉치: 그렇다. 큰 인기였다. 라지, 엑스라지 등 인기 있는 사이즈들은 아주 빠르게 완판 되었고 그 이외 사이즈들이 조금 남았다.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장님의 그림이 인기의 가장 큰 요인이었고 안산 선수 뺑치는 간지를 자랑하는 숏컷 언니들이 나서서 홍보해 준 덕분에 티셔츠를 찾는 사람이 많았다. 티셔츠는 평화와 반군사주위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전쟁없는세상과 평화운동 메시지를 알리는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



Q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있는데?

오리: 1달에 2번 발행하고 있다. 사무국에 여력이 많지 않아서 주로 단체 활동의 홍보수단으로서만 활용하고 있는데 점차 퀄리티를 높여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Q 예년에 비해 새롭게 조직운영차원에서 시도한 프로그램이 있다. 팀 교류회인데 각 팀별로 팀원들이 서로 친해질 의도이기도 하지만 전업세는 팀이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니까 각 팀의 사업을 이해하고 교차하기 위한 시도였다. 어땠나?

쭈야: 코로나라 제약이 많았지만 잘 진행되었다. 모두 두 번 했는데 첫 모임에서는 서로 친해지고 각 팀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현재 전쟁없는세상의 가장 핫한 쟁점(여성/트랜스젠더 군인의 가시화 및 권리 확대, 군대의 역할이 대민지원 등 민간으로 확대되는 현실, 사회복무제)에 관한 토론으로 진행했다. 참 좋은 경험 이었고 이 교류가 이후 10월에 아덱스 저항행동으로 이어져 팀을 교차한 액션그룹을 구성할 수 있었다.

Q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당연히 사회운동단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쟁없는세상은 어떤가?

형수: 전쟁없는세상도 예외가 아니다. 2020년에 비해 2백5십만 원 정도 수입이 감소했고 이중 절반은 CMS로 들어오는 정기후원금의 감소였다. 후원자들이 미안해하며 후원 중단 의사를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코로나로 오히려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부의 재분배에 신경을 전혀 쓰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날맹: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사무국의 활동일수를 하루 더 늘렸다. 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졌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하루치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사업에도 응모하고 사회의 모순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후원회원도 더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타임라인



전쟁없는세상 2021 재정보고

2021년 전쟁없는세상 수입은 2020년에 비해 약 250만 원(3%) 줄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수입항목 중 프로젝트 사업비 100만 원, 상금과 지원금이 약 1,900만 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프로젝트 사업비를 약 1,6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기후원인들의 후원금은 약 100만 원 정도가 감소했고 대신 비정기 후원금이 3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굿즈(티셔츠와 보드게임 <세상을 바꾸다: 광장에서 국회까지>)로 특별후원이 늘었고, 망치의 비폭력 트레이닝이 늘어나 수입도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감소했지만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수입이 크게 줄지는 않아서 감사한 일입니다.

지출은 2000년에 비해 약 1,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2021년에는 아텍스 저항행동 등 전쟁없는세상의 대형 사업들이 있었고 프로젝트로 지원받은 금액 역시 이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국 근무 일수 하루 증가로 인건비가 약 700만 원, 4대 보험비가 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퇴직 연금 가입을 추진 중이라 따로 2021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 실제 지출은 더 많습니다.

수입 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비율(%)
후원금	정기후원	51,184,467	60.5
	비정기후원	8,350,273	9.9
	특별후원	5,824,000	6.9
	지정기탁(예비군거부)	600,000	0.7
기타 사업 수입	행사수입	8,267	0.0
수입이자		42,259	0.1
일반보조금		2,240,000	2.6
지원금		14,238,832	16.8
잡수입		75	0.0
회비수입		2,147,240	2.5
총계		84,635,413	100

지출 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비율(%)
인건비	급여	54,960,000	59.0
	법정복리비	4,305,900	4.6
	복리후생비	771,000	0.8
	퇴직금	0	0.0
운영비	회의비	1,411,282	1.5
	통신비	1,418,505	1.5
	우편발송비	231,800	0.2
	교육훈련비	0	0.0
	사업관리비	1,224,400	1.3
	사무용품비	680,970	0.7
	지급수수료	3,429,280	3.7
	지급임차료	300,000	0.3
사업비	연대사업비	83,020	0.1
	영상제작인쇄비	5,202,650	5.6
	우편발송비	687,360	0.7
	사업행사비	1,003,992	1.1
	통신비	779,171	0.8
	지급수수료	16,454,750	17.7
	지급임차료	176,250	0.2
사업 외 비용	잡손실	30	0.00
총계		93,120,360	100

프로젝트 사업비

사업명	지원처	금액(원)
2021 평화캠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00,000
2021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인권재단 사람	1,000,000
2021 아텍스 저항행동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 온	9,238,832
2021 병역거부 영상 제작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5,000,000
총계		16,238,832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신 분들

2021년 한 해 동안 모두 371분의 개인과 단체가 전쟁없는세상의 활동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전쟁없는세상이 이 활동 보고서에 담긴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정 황현진 황예랑 황수영 황명규 홍창욱 홍진호 홍정훈 홍승희 홍수봉 현민 허인에 허윤 허원 허용만
한지선 한주훈 한정에 한은수 한영희 한규옥 한광희 하신호 하승우 편설란 트리 텀레이니스미스 키키 최혜영
최현지 최현정 최현성 최혁봉 최하늬 최진규 최준호 최정자 최정민 최인영 최의건 최윤영 최은(최다인) 최연우
최수진 최성관 최민아 최단비 최고운 최경송 채승우 참새 쭉야 진현호 진남 주영호 주관수 조용성 조영주
조성웅 조서연 조범준 정환윤 정혜진 정혜운 정현주 정혁 정은아 정윤빈 정우진 정을 정선정 정석근 정보영
정민수 정다혜 전형우 전주형 전영옥 전세현 장현진 장예정 장동엽 임태훈 임재화 임재성 임성민 인쇄 이희지
이희옥 이희성 이화연 이혜란 이현을 이향림 이평안 이팔선녀 이태리 이청수 이진옥 이지혜 이지는
이지연 이준규 이종혁 이종우 이종영 이조은 이정자 이재희 이재호 이자호 이은주 이은선 이원표 이원심
이용석 이영아 이연지 이신혜 이승규 이수호 이세현 이선화 이선영 이상현 이상진 이상민 이상길 이비함
이보람 이보라 이민정 이민정 이미현 이명훈 이동수 이덕현 이대화 이기철 이권우 이고운 이경민 이가현 의민
은유 윤혜정 윤현아 윤지선 윤정화 윤정하 윤복현 윤민순 윤다림 유호근 유현미 유하나 유민석 유미연 유건
원동규 우완 우공 우경환 오혜진 오학준 오정록 오영호 오수환 오소영 오성민 오동규 오경택 염창근 열풍
여환수 여지우 여문정 엄익복 양지혜 양은혜 양여옥 양선화 안홍렬 안진걸 안지환 안지혜 안정애 안영춘
안악희 안세영 아침 심아정 신현수 신재욱 신유아 신기현 신경미 시우 시와 송화섭 송현주 송현민 송창욱 송준
손희정 손혜진 성혜란 성인영 석상현 서정현 서민자 빌리카터 변규홍 백태현 백자영 백승덕 백가윤 배희숙
배여진 배사는 배보람 배병국 방효석 박휘동 박혜란 박필용 박태영 박철 박창희 박진환 박정숙 박재영 박은국
박용희 박영민 박애록 박아름 박승호 박수지 박수영 박소현 박세준(이은영) 박석진 박상준 박상욱 박도현
박내현 박경수 박경수 박건주 문치 문지에 문아영 문수영 문성호 마정윤 류진희 류순아 랑 라용 뜸 딸기 돌돌
덴마 대추리사람들협동조합 단한울 남윤아 남순아 날맹 나혁준 나인희 나영정 나동혁 나단 공지 까밀로 김훈태
김효진 김환태 김혜련 김형진 김형수 김현주 김현정 김한상 김태훈 김태환 김태정 김태영 김지호 김지은
김지윤 김지연 김중미 김주현 김중현 김조이스 김정은 김정원 김정덕 김은주 김은아 김유성 김용민 김완
김영호 김영환 김명철 김명준 김명수 김명락 김신 김수정 김수용 김송이 김솔 김세영 김성현 김성은 김성배
김선희 김선철 김선미2 김선미1 김석정 김상국 김산 김봉신 김봉수 김봄 김보선 김병경 김반지 김민희 김민정
김민영 김민 김미선 김동휘 김동주 김동원 김도형 김나희 김경희 김경록 김수 권현우 권주희 권김현영 구분규
괭이는 괭둥근 공현 공살 고희라 고동주 강푸른 강인화 강은애 강은빈 강소영 강성준 강성석 강선희 강남규
강길모 갈홍식 가람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세요

전쟁없는세상의 재정 대부분은 우리의 활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과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채워집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상근자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각종 캠페인 사업비 등 단체의 여러 활동에 사용됩니다.

CMS 정기후원

홈페이지에서 CMS 신청동의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자필 서명 후 단체로 보내주세요. 작성한 신청서는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파일을 보내주시고 원본은 추후에 따로 전쟁없는세상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정기·일시 후원

비정기·일시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후원금을 아래 계좌로 직접 보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일시기탁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파일을 전쟁없는세상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후원안내

withoutwar.org/donate

문의: 02-6401-0514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2-921333

예금주: 전쟁없는세상



주소 (0373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65 3층 전쟁없는세상

전화 02-6401-0514

이메일 peace@withoutwar.org

홈페이지 withoutwar.org

페이스북 facebook.com/withoutwar.org

인스타그램 [@withoutwar](https://www.instagram.com/withoutwar)

